차 례

제 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자!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셔왔는가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가장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뿌리로 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과 온 세상 사람들이 나아갈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짓부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있는 나라로 이름떨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넓은 길을 펼쳐주시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모든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평생을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의 가장 큰 자랑이며 행복입니다.

소년단원들은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학습을 잘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투사로, 소년근위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제 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대대로 모두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싸우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과 할아버님, 할머님은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습니다.

가운데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남달리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시였으며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선 《셔먼》호의 격침과 《쉐난도아》호를 격퇴하는 싸움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이시며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모두 나라를 찾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내세우시고 그분들의 투쟁을 힘껏 뒤받침해주시면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굴하지 않고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지니시고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조선국민회를 무으시고 생애의 마지막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나라 혁명적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선생님이십니다.

강반석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김형직선생님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삼촌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으시고 이끄신 혁명조직과 조선혁명군에 참가하시였으며 주체19(1930)년 여름에는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국내깊이까지 나오시여 무장활동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일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생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린시절에는 새날소년동맹원으로, 청년시절에는 안투(안도)공청조직의 책임자로서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굳세게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도 일제를 반대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불굴의 반일애국투사들이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정이였습니다.

제 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1)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교양을 받았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만경봉에 자주 오르시여 아버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우리 나라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이야기,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손수 《자장가》도 지어 불러주시였으며 반일애국정신을 가지고 일제를 몰아내자면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에게 어려서부터 글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도록의 가사를 짚으면서)

그리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벌써 《조선독립》이라는 글자를 붓으로 쓰시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

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는 해종일 밭일을 하시고 저녁이면 저녁대로 무명낳이와 바느질을 하시면서도 밤마다 아드님을 옆에 앉히시고 글공부를 시키시였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도록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군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동지들과 인민들의 두터운 신임과 믿음속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는 아버님과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원칙성이 강하신 어머님의 성품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며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쓰라린 생활체험과 조국과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직접 목격하시는 과정에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비밀을 지켜 일제경찰놈들과 싸우시는 어머님의 강의한 모습을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리신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가시면서도 떳떳하시던 모습과 일제경찰놈들과 맞서 꿋꿋이 싸우시던 어머님의 모습,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으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서 커서 일제놈들을 때려부실 굳은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감옥에서 아버님을 만나보시며 일제를 때려부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강동, 중강, 린쟝(림강), 바다오거우(팔도구), 푸쑹(무송)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나라잃은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시며 일제를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시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아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다니시며 계시던 집들인 봉화리 살림집, 중강려인숙, 린쟝(림강)살림집, 푸쑹(무송)살림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일하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키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늘 어머님과 함께 밭으로 나가시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뙤약볕아래서 땀흘리며 김을 매시는 어머님의 앞으로 먼저 나가시며 밭이랑의 큰 풀을 뽑기도 하시고 뽑은 풀을 한아름씩 안아다 밭최뚝에 무져놓기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할아버님의 일손을 도와드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으

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고 부모님들의 피어린 혁명활동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습니다.

제 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2)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로 준비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였으며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 공부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남달리 총명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4살 잡히던 때부터 아버님에게서 우리 글을 배우시여 자체로 쓰고 읽으시였으며 5살때부터는 스스로 글의 뜻을 리해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봉화리에 계실 때 명신학교에서 울려나오는 아버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였습니다.

6살나시던 해에는 아버님께서 써주신 연설문을 외우시여 마을사람들앞에서 연설까지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짧은글도 잘 지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였으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아버님을 만나뵈온 다음부터 일제놈들을 때려부실 마음을 가지시고 군사놀이에 더욱 열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1919)년 일제를 반대하는 3.1인민봉기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만경대인민들과 함께 30여리나 되는 보통문앞까지 가시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부르시였습니다.

이날 어리신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과 굴함없

이 싸우는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죄없는 사람들을 총칼로 무참히 죽이는 왜놈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보시면서 반일애국정신을 키우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희생적인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상을 가슴깊이 새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궁냥이 크고 탐구심이 강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무지개잡이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리실 때부터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계신 대원수님께서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만경대고향집앞의 들메나무에 오르기도 하시고 만경봉 소나무에 오르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옷이 닳아지면 어머님께 수고를 끼친다고 썰매바위타기도 그만두시였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축음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비밀을 아시려고 소리판도 깨여보시고 칼끝으로 공명판도 뜯어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동무들을 사랑하시였으며 부모님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을 옳은 길로 나가도록 타이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리실 때부터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시였던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고 동무들을 옳은 길로 이끄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가꾸신 복숭아가 한창 익어가던 어느날에는 복숭아를 따자고 조르는 동무들을 타이르시고 다 익은 다음에야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할아버님께 먼저 드리시고 동무들과 함께 나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비밀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리신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팔도구)에서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와 비밀편지도 나르시였고 아버님께서 비밀모임을 하실 때에는 망도 보아드리시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적을 보여주는 만경대의 들메나무, 군함바위, 썰매바위, 씨름터 그리고 봉화리군사놀이터, 중강승리터입니다.

제 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를 찾으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두살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의 글을 더 잘 배우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애국의 뜻을 키우기 위하여 혼자서 조국땅을 향하여 팔도구를 떠났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팔도구)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자면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대로 주체12(1923)년 3월 16일 바다오거우를 떠나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

였습니다.

○ 이 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보여주는 로정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월탄을 거쳐 대낮에도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난다는 오가산의 협산준령을 홀몸으로 넘으신 다음 화평, 흑수를 지나 강계에 이르시여 부모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글자의 전보를 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3월 29일 14일만에 고향 만경대에 도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있어서 이 천리길은 일제에게 짓밟히고 뜯기우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하고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이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만경대고향집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나라찾을 큰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계시던 칠골외가집과 공부하시던 책상이며 그리고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던 창덕학교와 교

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학습에 열중하시여 첫 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걸쳐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와 집에서뿐아니라 만경봉에 자주 오르시여 저녁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보통강의 토성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인민들의 눈물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억눌려사는 인민들을 구원할 마음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학습을 도와주시면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를 자

주 들려주시였으며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도록 일깨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아래 이 사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의 혁명활동사적을 보여주는 칠골독서터, 칠골군사놀이터와 룡악산랭천터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어느날 아버님께서 일제놈들에게 또다시 붙잡히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찾는 싸움에 나설것을 다짐하시고 주체14(1925)년 1월 22일 바다오거우를 향하여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압록강가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과 싸워이겨 나라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마음을 다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

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비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부르신 《압록강의 노래》를 새긴 노래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압록강을 건너 어머님께서 계시는 바다오거우에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께서 일제놈들에게 붙잡혀가시다가 무사히 몸을 피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감시와 수색소동을 피하시여 그밤으로 동생들을 데리시고 린쟝(림강)으로 떠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생들과 함께 린쟝(림강)으로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께서 혁명활동을 하고계시는 푸쑹(무송)으로 가시여 푸쑹제1소학

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나라찾을 큰뜻을 더 억세게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제 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적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청년학생들을 투쟁속에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로 억세게 키우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화디엔(화전)으로 가시여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뒤떨어진 민족주의사상으로 일관된 화성의숙의 교육내용이 새것을 지향해나가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읽으시며 거기에서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구

체적현실과 결부시켜 깊이 연구분석하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인민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들을 키워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이 사업을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속에서부터 시작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17일 몸소 키우신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을 무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ㅌ. ㄷ》를 무으시는 모임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임에 참가한 전체 조직성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 세대들의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ㅌ. ㄷ》에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여나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ㅌ. ㄷ》를 무으신 후 조직을 확대공고화하며 그 활동범위를 넓혀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무르익히시며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6(1927)년 1월 중순 지린(길림)으로 가시여 지린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청년학생들을 새로운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조직에 묶어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니신 지린(길림)육문중학교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2월 15일 푸쑹(무송)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고 주체16(1927)년 4월 지린에서 조선인지린소년회를 무으시였습니다.

주체16(1927)년 5월에는 지린에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인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고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16(1927)년 8월 2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고 8월 28일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던 베이산(북산)공원의 야오왕(약왕)묘와 그 안에 있는 지하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7(1928)년 1월 15일 푸쑹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몸소 창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날》신문발간사업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국반동군벌과 반동교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일제놈들의 철길놓는 공사를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일본상품을 끌어들이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이 사진은 민족주의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폭로비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허황한 주장과 그릇된 리론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면서 그들의 각종 《주의주장》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날날이 폭로비판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운동단체들이 분렬을 극복하고 통합을 실현하도록 혁명적인 영향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8(1929)년 가을 동지들과 함께 반동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여 지린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계속 지도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투쟁방도를 무르익히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던 지린(길림)감옥과 감방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5월초에 감옥에서 나오시였습니다.

제 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 준비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놓으시고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리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 ㄷ》의 강령을 시원으로 하여 그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구상하시고 무르익혀나가시였으며 그 과정에 선군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6월 30일 카륜(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를 여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 선군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를 밝히시고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제관계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도록의 가운데로작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일제놈들을 몰아내기 위한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문제,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 당을 내올데 대한 문제 등 당장 해야 할 과업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적당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7월 3일 주체형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무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카룬(카륜)회의를 지도하시고 첫 당조직을 무으신 쟈쟈툰부락과 그이께서 계시던 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3일 카룬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당조직을 무으신 후 급속히 늘이시였습니다.

여기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10월 1일에 우리 나라의 북부두만강지대인 온성군 두루봉에서 온성지구 혁명조직핵심들로 국내당조직을 무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핵심골간을 키우며 무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6일 조선혁명군을 무으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군대오를 무어주신 구위수(고유수) 리쟈툰(리가툰)전경이며 여기에 있는 이 인물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인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공영, 계영춘, 김원우, 박근원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군 성원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바이(장백), 푸쑹(무송) 등 만저우(만주)의 각지와 국내 여러 지역에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파견하시여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군 성원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하여 우쟈쯔(오가자)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가시여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농촌혁명화를 위하여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0(1931)년 5월 20일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연설

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5.30폭동의 교훈을 총화하신 다음 새로운 혁명적조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수수한 옷차림으로 농민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린(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부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선의 캄캄한 밤하늘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안아오는 새별이라는 뜻에서 그이의 존함을 한별동지라고 불렀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불렀습니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한별동지로 불러오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존함을 어찌 새별에만 비기겠는가고 하면서 그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에서 **김일성**동지로 다시 고쳐부르게 되였습니다.

○ 도록의 아래사진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보급하는 청년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 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무으시고 유격근거지를 꾸리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무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주체20(1931)년 12월 16일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0(1931)년 12월 밍위에거우회의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유격대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 비밀아지트로 쓰시던 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도록 하시고 소규모의 유격대들을 조직하시여 반일인민유격대를 무을 준비를 다그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투(안도)현 샤오사(소사)하 무탸오(무주)툰 투치디엔(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진행하시고 그 탄생을 선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첫 혁명무력이였습니다.

안투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그때로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안투(안도)현 샤오사(소사)하 무댜오(무주)툰전경이며 이 권총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초기에 쓰시던 권총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5.1절을 계기로 반일인민유격대오가 행진한 쑹강(송강)앞거리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만원정과 북만원정을 조직진행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꾸리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여러가지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인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만강주변의 넓은 곳에 유격근거지를 꾸리시였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와 반유

격구를 활동거점으로 꾸리도록 하시여 유격대와 인민들이 언제나 적과 싸울수 있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5월말 안투현 샤오사하에서 몸소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샤오사하 유격구역창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여러가지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토지를 분여받은 유격구인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와 친일주구, 민족반역자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시고 8시간로동제와 남녀평등권,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만나시여 우리 나라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한 방도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제 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를 보위하고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며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유격구를 보위하고 반일부대들과 련합전선을 이룩하신데 대해서와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2(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주체22 (1933)년 3월 왕재산에 나오시여 온성지구 지하혁명조

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후 한해동안에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면서)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국내진출을 기념하여 왕재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방위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샤오왕칭(소왕청)유격구역방위전투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의 《토벌》공세를 짓부시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군사기술적으로 더 잘 준비하도록 하시였으며 유격구의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유격구를 요새화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봄과 그해 가을부터 주체23(1934)년초까지 샤오왕칭유격구역에 달려든 수천명의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고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3(1934)년 3월 왕칭(왕청)현 마촌에서 반일인민유격대 군사정치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하여》 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에 사단과 련대, 중대, 소대, 분대들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며 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부대를 편성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일부대와 담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부대들과 련합전선을 펴시고 둥닝(동녕)현성전투와 루오쯔거우(라자구)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들을 조직하여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

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여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4(1935)년 3월 27일 야오잉거우(요영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에 겁을 먹은 일제놈들은 《민생단》이라는 간첩단체를 만들어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버리려고 꾀하였습니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견실한 조선혁명가들을 《민생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구 죽이면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날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북만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황와이(다홍왜)회의와 야오잉거우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을 바로잡으시고 위험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에서 조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의 비맑스주의적이며 좌경맹동주의적인 립장과 견해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었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다황와이(다홍왜)회의와 야오

잉거우(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입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여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더 세차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유격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넓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라오허이(로흑)산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치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들을 조선과 남북만의 넓은 곳으로 내보내시고 또다시 북만원정을 떠나시기에 앞서 라오허이산전투와 타이핑거우(태평구)전투를 조직진행하시여 큰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북만에 이르시여서도 큰 전투들을 벌리여 왜놈들을 족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에 의하여 전복된 일제의 군용렬차입니다.

제 1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아동단을 무으시고 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유격구아동단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도 유격구에는 물론 적통치구역안에까지 아동단조직을 내오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왕칭(왕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아동단사업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입니다.

아동단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소년들의 반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정치조직이였습니다.

아동단의 구호는 《전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입니다.

아동단의 상징은 아동단기발, 아동단의 붉은넥타이, 아동단경례, 아동단곤봉입니다.

아동단은 중대(단), 소대(분단), 분대(반)로 나누어져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조선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실망과 비관이 없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동단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매일과 같이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유격구마다에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우랑(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학교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아동단원들의 잠자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추운 겨울날 자그마한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고계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만은 크고 더운 집에서 두툼한 솜옷을 입고 지내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아동단원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깊은 밤 아동단원들의 침실에까지 들리시여 모포깃도 여며주시고 베개도 바로잡아주시면서 그들을 친아버지보다 더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안산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으며 헐벗고 굶주리

고있던 아동단원들에게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시였던 뜻깊은 사연이 깃든 돈 20원을 내놓으시여 옷을 해입히도록 하시고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소년중대원들을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투사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데리고다니시면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간고한 시련속에서 소년중대원으로,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단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실천투쟁을 통하여 아동단원들을 단련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아동단원들을 키워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혁명전사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유격구아동단원들의 학습과 생활, 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김금순의 장렬한 최후와 영웅성에 대하여 소개한 출판물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슬기롭고 용감한 아동단원들은 보초와 감시근무, 통신련락, 삐라뿌리기와 같은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연예대활동도 잘하였습니다.

아동단원 금순이는 련락임무를 맡고 적통치구역에 들어갔다가 그만 왜놈들에게 붙잡혔으나 사형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비밀을 지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아동단원들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투사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제 1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을 더 높이 이끌어올리시고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더 높이 이끌어올리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5(1936)년 2월 27일 난후터우(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 난후터우회의에서 조선혁명을 더 높이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내보내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넓혀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조선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조직을 내오며 당을 무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둥강(동강)에서 회의를 여시고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내오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규약》,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

대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근거지를 꾸리기 위하여 백두산기슭의 넓은 곳에서 수많은 전투들을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푸쑹(무송)현성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25(1936)년 8월에 있은 푸쑹(무송)현성전투는 이름난 전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모조리 족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잘루목을 지켜 영웅적으로 싸우시여 사령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부대의 철수를 훌륭히 보장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전투후 압록강연안으로 나오시여 다더수이(대덕수), 샤오더수이(소덕수) 등을 쳐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9월 하순 몸소 주력부대성원들을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너 소백수골에 나오시여 밀영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소백수골안에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5(1936)년 9월 국내에 진출하시여 백두산밀영건설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되였습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내와 시지엔다오(서간도)의 넓은 곳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인 백두산근거지를 꾸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 사령부를 두시고 후창(지금의 김형직군), 풍산(지금의 김형권군), 랑림, 부전, 신흥, 양덕지구를 비롯한 국내깊이에까지 나오시여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1930년대 후반기 국내주요비밀근거지분포도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주변 인민들속에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 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이 지역에 파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과업을 받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신파지구를 비롯한 국내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 등을 내오시고 혁명가

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6(1937)년 3월 시강(서강)회의에서 조국으로 나아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주체26(1937)년 6월 3일 밤 일제놈들이 물샐틈없이 지키고있던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의 뒤산인 곤장덕에서 숙영하시였습니다.

6월 4일 밤 10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울리신 총소리와 함께 보천보전투가 시작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순식간에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고 보천보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거리로 달려나온 인민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광복의 해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에서 얻어맞고 달려드는 수많은 일제놈들을 커우위수이(구시)산과 지엔싼(간

삼)봉에서 모조리 족치시였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맞서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안겨주었습니다.

제 1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겹쌓인 난관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겹쌓인 난관을 헤치시고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올리시고 무산지구전투와 대부대선회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7(1938)년 11월 25일 난파이쯔(남패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7(1938)년 11월 난파이쯔에서 회의를 여시고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

고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국경지대에로 내보내는 한편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후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주체27(1938)년 12월초부터 주체28(1939)년 3월말까지 100일도 넘는 고난의 행군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진 추위와 가슴을 넘는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면서 검질기게 뒤따르는 왜놈《토벌대》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시며 행군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대원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 차례지는 강냉이 몇알마저 모아두었다가 허기진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으며 한홉의 미시가루마저도 대원들과 함께 나누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쉴 때면 자신의 피로는 푸실념도 하지 않으시고 어린 대원들의 궤진 신발을 기워주기도 하시며 대원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내외원쑤들과 싸워 승리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진출로정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고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치시고 주체28(1939)년 4월초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 이르시여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여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베이다딩쯔(북대정자)회의가 진행된 곳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주체28(1939)년 5월 18일 압록강을 건느시여 또다시 조국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5월 23일 유인매복전술로 일제놈들을 대홍단벌에서 눈깜박할사이에 족쳐버리시여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부대선회작전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뛰여난 전술에 계속 녹아난 일제놈들은 수십만의 군대와 경찰을 내몰면서 미친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큰 부대를 거느리시고 미리 정한 비밀길을 따라 끊임없이 돌면서 놈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갑자기 나타나 불벼락을 안기고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놈들이 따라오면 놈들을 족치기 유리한 곳으로 유인하여 또 족치고 자리를 옮기는 대부대선회작전으로 놈들을 족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후 조성된 정

세의 요구에 맞게 소부대에 의한 적극적인 분산활동을 힘있게 진행하시여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최종적으로 물리치시였습니다.

제 1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의 날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샤오하얼바(소할바)령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9(1940)년 8월 10일 둔화(돈화)현 샤오하얼바(소할바)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29(1940)년에 들어서면서 정세는 조국해방의 날

이 가까와옴을 보여주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샤오하얼바령에서 회의를 여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소부대군사활동을 령활하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9(1940)년 9월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소부대와 소조들의 임무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밝

히시였습니다.

또한 소부대활동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인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빈틈없는 준비에 기초하여 소부대, 소조들의 군사정치활동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특히 주체30(1941)년 봄부터 원동에 새로운 기지를 꾸리시고 국내와 만저우(만주)일대를 오가시면서 소부대활동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내각지에 소부대와 소조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을 국내는 물론 만저우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여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만저우와 국내의 여러곳에 나오시여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끄심속에서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은 전국각지의 중요지대와 만저우의 넓은 지역에 림시비밀근거지를 수많이 꾸려놓고 일제의 큰 규모의 《토벌》공세를 짓부셔버리면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회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일제와의 최후결전의 시기에 전민항쟁에 떨쳐나서도록 튼튼히 준비시켰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와 정

치공작소조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국내에 진출하시여 소부대활동을 조직령도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1(1942)년 6월 백두산밀영에 오시여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고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탄생하신 아드님의 장래를 뜨겁게 축복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의 기상이 넘쳐나는 아드님의 얼굴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시다가 김정숙어머님께 후대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하시면서 백두산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후대들이 대를 이어 들고나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백두산3대장군을 높이 칭송하여 나무에 쓴 구호문헌입니다.

제 1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령도하시여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짜시고 마지막판가리싸움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마지막판가리싸움준비사업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6월초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최후결전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협동작전훈련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현대전쟁방법과 군사기술을 습득하는데 기본을 두고 상륙훈련과 항공륙전대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훈련을 더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를 무찌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과 무장봉기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이 무장봉기에 떨쳐나설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습니다.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은 평양을 비롯한 중부조선일대와 함경남북도, 남부조선일대의 여러 지역에 조직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무장봉기로 호응할것을 토의하는 조국해방단 성원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세우시고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일제놈들과 마지막판가리싸움을 할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모임에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이어 5월 1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방향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주체34(1945)년 7월 3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발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이 작전계획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공격작전과 그에 배합한 전민항쟁으로 일제놈들을 멸망시키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부대의 전투서렬을 재편성하시고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로 중요도시들과 지구별책임자들을 임명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총공격에로 넘어가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면서 조국에로 진격하였습니다.

간백산밀영을 최후공격작전의 출발진지로 차지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소조들, 전민항쟁조직들과 함께 각 도들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두만강연안에 집결한 부대들은 일시에 적의 국경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흥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들은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웅기(선봉)에 상륙하여 청진일대에로 진격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세찬 공격에 일제놈들은 넋을 잃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일제는 하는수없이 1945년 8월 15일 황급히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패망당한 일제침략자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조국해방위업의 빛나는 실현은 선군의 기치밑에 항일혁

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였습니다.

제 1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여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새 조국건설에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서와 전체 인민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이 로작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34(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새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나라를 세우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온 나라 여러곳에 보내시고 그들의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갈림길에서 고향 만경대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9일 20년세월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가까이 보시면서도 들리지 않으시고 새 조국건설의 기둥인 로동계급과 나라일을 의논하시기 위하여 강선으로 곧바로 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9일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일제놈들이 마사놓고간 제강소를 자체의 힘으로 빨리 복

구할데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국광복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새 조선을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자기의 국가를 세우고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건국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다고 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는 사

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연설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퍼졌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온 민족이 커다란 기쁨과 감격으로 열렬히 환영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조국개선과 투쟁업적을 소개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과 함께 여기 신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조국개선을 끝없는 기쁨속에서 맞이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할머님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조국인민들과 첫인사를 나누신 후에야 항일혁명투쟁의 기나긴 나날 언제나 잊으신적이 없으시던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여 그처럼 그리시던 할아버님, 할머님을 비롯한 가족, 친척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기념하여 세운 개선문입니다.

제 1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우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공산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0일 공산당을 창건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는 로동계급의 전위부대, 혁명의 힘있는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이 집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당을 건전하고 강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체35(1946)년 8월말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여시고 당을 대중적정당인 북조선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의 두

리에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대중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로동자들은 로동자조직에, 농민들은 농민조직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녀성들은 녀성조직에, 문화인들은 문화인조직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녀성동맹, 민주청년동맹 등 대중단체들을 무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은 직업동맹에, 농민들은 농민동맹에, 녀성들은 민주녀성동맹에, 청년학생들은 민주청년동맹에 뭉치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내오시여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원들의 지성어린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6일 민주

청년동맹의 교대자인 조선소년단을 무으시여 모든 소년들을 소년단조직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어주신 조선소년단창립행사와 소년단원들의 경축시위장면입니다.

제 1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광복후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8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민들은 바라고바라던 자기의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에서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 《20개조정강》의 친필원고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을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새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여러가지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

개혁법령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안남도 대동군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옳게 실시하기 위하여 한달동안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담화하시면서 농촌의 구체적형편을 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땅이 없던 우리 농민들은 돈 한푼 내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땅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8월 1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10일에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내놓으시여 일제와 그 앞잡이들, 예속자본가와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광산들을 빼앗아 나라와 인민의 재산으로 만들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도표는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한 여러 법령들을 내놓으시여 로동자, 사무원,

녀성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창덕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주체36(1947)년 7월 4일 평양제2인민학교를 찾으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나라의 앞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해방후 아무것도 없었던 어려운 형편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주시고 몸소 학교들을 찾아주시여 따뜻이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힘있게 이끄시여 전체 인민들의 사상문화적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새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시였습니다.

제 1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신데 대하여서와 자체의 힘으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공화국을 세우시고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길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6(1947)년 2월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업과 농업을 자기 힘으로 움직여나

갈수 있게 발전시켜주시고 모든 개인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만들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농민들과 함께 모를 꽂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양학원을 비롯한 군사정치간부학교와 훈련소들을 세우시고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평양학원창설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체의 국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첫 병기공장이 조직되고 자체의 힘으로 만든 첫 기관단총시제품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열병식 주석단에 서계시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성대한 열병식을 마련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이 어떤 군대인가 하는것을 밝히시고 정규무력으로서의 조선인민군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때려부시고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조국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7(1948)년 4월 21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4월에 남북련석회의를 여시고 조선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남북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있는 이 사진은 평양시 쑥섬혁명사적지에 세운 통일전선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7(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 후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힘을 더욱 튼튼히 다져가시는 한편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제안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 이 사진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도발책동과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입니다.

제 1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로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온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반부의 넓은 땅을 해방

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미쳐날뛰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인민군대에 즉시에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9(1950)년 6월 26일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

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 이 사진은 전선으로 탄원하는 청년들이며 아래의 사진은 전선원호를 결의하는 소년단모임장면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반공격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남반부의 넓은 땅을 해방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략도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의 략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서울을 해방하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인민군땅크병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영웅적조선인민군용사들은 원쑤들을 무찌르며 남으로 달려나가 3일만에 놈들의 소굴인 서울을 해방하였습니다.

성난 사자마냥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의 공격앞에서 질겁한 미제침략자들은 수많은 군대와 무기들을 전선에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전해방전투를 작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최전선에 나가시여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불비 쏟아지는 전선으로 나가시여 대전해방작전도 지휘하시고 인민군용사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주도세밀한 작전계획과 지휘밑에 인민군부대들은 대전을 단숨에 해방하고 전쟁이 일어난지 한달반사이에 남반부의 거의 모든 땅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대전해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인민군용사들의 락동강도하전투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남반부땅에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을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시여 남녀인민들에게 새 제도,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위한 광주군 언주면 대표자회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사진은 남반부인민들이 제반 민주개혁실시를 열렬히 환영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인민민주주의제도에서 처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남반부인민들은 이 고마운 제도를 지키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전선으로 나가는 의용군부대입니다.

제 2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선의 승리를 이룩하며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서와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조직하시고 전시생산과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조직령도하시면서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용감한 소년근위대 대원들입니다.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한 지역에서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소년근위대를 뭇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1월 하순 전체 인민군부대들에 반공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며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인민군용사들은 련속 적들을 공격하여 12월말에는 북반부의 전체 지역과 일부 남반부지역까지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조직하시고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갱도진지굴설작업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선차적임무는 전선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조국

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에서 완강한 진지방어전을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0(1951)년 6월부터 전선이 38°선계선에 고착되고 전쟁이 오래 지속되게 되는 실정에 맞게 굴을 파서 진지를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을 호되게 쳐부실데 대한 새로운 갱도전법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습격조를 무어 대담하게 적진지에 들어가 감쪽같이 놈들을 족쳐대는 전법, 총을 잘 쏘는 군인들로 조를 무어가지고 적들이 나타나는족족 쏘아눕히는 전법, 보총과 기관총으로 적비행기를 쏴떨구는 전법 등 뛰여난 여러가지 우리 식 전법들을 내놓으시여 적들이 벌벌떨게 만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211고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의 《추기공세》를 짓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0(1951)년 9월 하순 몸소 포연탄우속을 헤치고 최전연의 고지에까지 오르시여 1211고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안을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1211고지를 피로써 지켜싸우고있는 인민군용사들이며 그우의 사진들은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리수복영웅과 조국의 고지를 지켜 용감히 싸우는 조군실영웅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시생산과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시생산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동군 원화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동군 원화리를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쌀을 많이 생산하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군수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로동자들이 군수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생산을 적극 늘이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들은 전시무기생산과 식량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군수공장과 농촌의 청년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주체41(1952)년 6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락원기계제작소(오늘의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주철

직장 당세포총회에 참가하시여 로동자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 마사진 공장과 도시와 농촌을 복구건설하여야 하겠는데 곤난이 많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있던 한 녀성당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 간것을 2~3년동안에 복구해가지고 잘살았는데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실것을 삼가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녀성당원의 소박한 말에서 우리 로동계급의 강한 마음을 보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모든 준비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였습니다.

제 2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을 강화하여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실정에 맞게 인민군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40(1951)년 10월에 모범중대운동을 발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41(1952)년 12월에는 조선인민군 고급군관회의를 여시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라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도록에 있는 로작을 짚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로동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1(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40(195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선과 후방에서 헌신적으로 싸운 로동자, 농민, 군인, 사무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여 당대렬을 늘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41(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이런 나날에 당원들속에서는 당에 대한 충실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당안에 기여들어 오래동안 종파행동을 하면서 미제의 간첩노릇을 한 박헌영, 리승엽간첩종파도당을 잡아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반타격전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간악한 미제침략자들은 1952년말에 《신공세》를 벌려 기어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미제의 《신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2월 동해안방어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을 찾으시여 적들을 조국땅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말라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전쟁의 마지막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놈들에게 된벼락을 안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3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벌려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였으며 351고지를 빼앗고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더는 전쟁을 계속할수 없게 된 미제는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고지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있는 인민군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전과를 보여주

는 자료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2월 7일에는 원수칭호를, 주체42(1953)년 7월 28일에는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으시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기념하여 세운 전승기념탑 중심주제상인 《승리》 상입니다.

제 2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후복구건설사업과 사회주의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의 길을 밝히시고 복구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8월 3일 강선제강소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전쟁기간 미제승냥이놈들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공장과 학교는 모조리

불타버리고 다 마사졌습니다.

성한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인민이 전쟁의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고 제힘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일떠세울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선제강소(당시)를 비롯한 여러 공장들과 농촌에 몸소 나가시여 로동자, 농민들을 만나시여 마사진 공장과 농촌경리를 복구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크나큰 믿음과 힘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보고에서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

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더미우에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일떠세웠으며 살림집들과 학교, 극장, 병원들을 지었습니다.

○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을 고무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는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주체43(1954)년부터 시작한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

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이끄심밑에 2년 8개월 만에 넘쳐 수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간부군대로 만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립적국방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고 나라의 국방력이 나날이 강화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적극 다그쳐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4(1955)년 4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4(1955)년 4월에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힌 테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테제에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빨리 다그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먼저 농촌에 협동조합들을 널리 조직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4(1955)년 7월 25일 장강군 종포리 농업협동조합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도시수공업자들과 개인기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6(1957)년 10월 10일 벽동군 동주중학교 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6(1957)년 10월 두메산골 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시기 위하여 수풍호의 배길로 동주리앞을 지나시다가 호수가에서 뛰놀던 학생들이 먼발치에서 부르는 만세소리를 들으시고 배머리를 돌리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제 2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하신데 대하여서와 우리 나라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5(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 조선로동

당 제3차대회를 여시고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부문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닦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5(1956)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내놓으시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후 강선제강소(당시)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여 강재를 계획보다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언제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온 강선의 로동계급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한해에 강재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강선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인차 온 나라에 퍼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들이 련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옳바른 이끄심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47(1958)년 8월에 농업협동화가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도시에서 수공업을 하거나 공장을 가지고있던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습니다.

결과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8(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신 다음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인민들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제1차 5개년계획을 2년반이나 앞당겨 해냈으며 우리 나라는 무엇이나 마음먹으면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도표는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당의 군대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반종파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숙청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는데서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로작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47(1958)년 2월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인민군대가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전통은 항일유격대의 전통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도서들을 수많이 출판하며 인민군대안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제 2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웅대한 과업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제1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히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서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내놓으신데 대하여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제1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0(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기초

건설의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시고 제1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제1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그쳐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이후 전당과 전체 인민을 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제1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김책제철소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내놓으시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강서군 청산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9(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에 나가시여 보름동안 머물러계시면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일군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모든 일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여기 도록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안전기공장(당시)에 나가시여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시였으며 숙천군에 가시여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1(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침략자들이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더욱 미쳐날뛰는 바람에 나라안팎의 정세는 험악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정세속에서 주체51(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여시

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이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면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나가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경제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몸소 최전연의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고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자라나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녹아난 미국놈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3(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테제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방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력사적과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갔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제 2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5(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1960년대 중엽에 들어와서 세계혁명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5(1966)년 10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여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발전시

키기 위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이후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드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6(1967)년 6월 룡성기계공장(당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운동을 벌리던 때와 같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룡성의 로동계급이 이 투쟁의 앞장에 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7(1968)년 4월 전국청년총

동원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7(1968)년 4월 전국청년총동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청년들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7개년계획을 넘쳐 해내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도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의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제1차 7개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결과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꼬마계획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에 바친 《소년》호전기기관차와 《소년》호뜨락또르증정식장면입니다.

제 2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령을 펼쳐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과업을 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9(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

업을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밀고나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 과학, 문화의 모든 부문을 크게 발전시키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이후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나가시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 도록아래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행하여야 할 오랜 기간의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누가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를 바로 모시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주체63(1974)년 2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기나긴 세월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분은 없습니다.

이제 몇달 지나면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우리가 걸머지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출판물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0(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에서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제 2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신데 대하여 그리고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2(1973)년 2월 10일 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2월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조직에서 선발한 우수한 일군들과 지식있는 대학생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내보내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습에서와 여러 로작들에서 3대혁명소조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고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사진은 생산현장에 들어가 과학기술적지도를 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주체64(1975)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에 의하여 창조되였으며 모든 단위에 급속히 확대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들고 떨쳐나선 검덕의 광부들과 청산리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

구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도록아래의 구호를 가리키면서)

그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이 적극 추진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청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한 신문보도자료들입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구호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2월에 제시하신 혁명적구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3(1974)년 2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내

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하여 5개전선인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김책제철소확장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몸소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릴것을 호소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만든 모내는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해내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 2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과 사회주의문화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

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6(1977)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6(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를 여시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가운데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국가활동에서 기본방식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라고 하시면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제2차 7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

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7(1978)년 12월에 내놓으신 혁명적구호입니다.

이 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 기본요구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9(1980)년 9월 10일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주체68(1979)년 2월 20일 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69(1980)년 9월까지 제2차 7개년계획의 3년분과제가 완수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문화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교육사

업을 발전시키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개학날 대동문인민학교(오늘의 **김성주**소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후 전국교육일군대회를 여시고 교육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7(1978)년 10월 1일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있는 대학생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과학연구사업과 문학예술사업, 인민보건사업과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창조성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영화, 가극, 연극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활짝 꽃핀 주체예술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이 사진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해나가는 학생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고있는 청소년학생들입니다.

제 2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내놓으시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지난 10년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세멘트, 화학비료, 천, 수산물, 알곡생산과 간석지개간 등에서 1980년대에 점령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히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전망목표점령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71(1982)년 10월에 전국청년열성자회의를, 이어 11월에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3(1984)년 9월 14일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철고지와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주체72(1983)년 8월 23일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현지지도밑에 진행된 새 전망목표점령을 위한 총진군운동속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는 제2차 7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된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제 3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들을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서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들을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5(1986)년 12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시

정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5(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채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1(1992)년 9월 16일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을 찾으시여 농작물의 육종사업과 재배방법을 과학화하여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만든 신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평양시건설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한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에는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등 새로운 현대적거리들이 건설된데 이어 통일거리를 비롯한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성과

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그리고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1일경기장 등 수많은 문화체육시설들과 창광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일떠섰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건설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키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1980년대말에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져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체79(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떨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후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굳건히 다지고 그 역할을 높이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지고 온 세상 인민들이 우러러보는 희망의 등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제 3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청소년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2(1993)년 2월 18일 사로청 제8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야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때문에 청소년들의 대중적조직이며 교양단체인 청년동맹과 소년단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대회와 소년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을 마련해주시고 친히 참석하시여 매시기 청년동맹 및 소년단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여기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년동맹지도일군들을 자주 만나시여 그들이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청소년사업을 잘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제

일 좋은것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교부터 세워주시였으며 오늘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시여 누구나 다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우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갖춘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제일 좋은 곳에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 등을 지어주시였으며 학생소년들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기시고 고이 키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과외교양의 거점이며 지덕체교양의 본보기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경치좋은 곳에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입니다.

그리고 도록가운데 있는 구호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속에 계실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매해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가하시여 박수도 제일먼저 쳐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여기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생소년들을 위한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일 좋게 만들도록 친아버지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어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세상에서 부러운것없이 행복하게 자라며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녘땅과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갖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고있는 재일조선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여나 조

국땅을 밟아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조국에 부르시여 혁명전적지와 명승지, 공장과 농촌을 참관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제 3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1(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에 발표하신 로작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

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인민군대앞에 새로운 충실성의 구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를 제시하시고 이 혁명적구호가 군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도록 하시였습니다. (도록우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더 잘 받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안에서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군인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모신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늘 인민군부대들에 내려가시여 군대안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면서 군인들의 훈련모습도 보아주시고 군사정치훈련을 잘한 군인들을 치하하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구분대 전술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군건설위업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주체82(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시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군이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1(1992)년부터 주체82(1993)년사이에만도 10여차례에 걸쳐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대회를 비롯하여 부문별대회들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전군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잘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에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사관장대회를, 주체81(1992)년에는 중대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중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국방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여러 회의들에서 당의 국방공업중시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라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지고 우리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원쑤도 쳐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 왼쪽의 이 사진은 일당백의 위력을 시위하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며 오른쪽의 이 사진은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열병대오입니다.

제 3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1(1972)년 5월 3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는 원칙에서 통일하는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2(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6월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나라를 영영 둘로 갈라놓으려는것을 막기 위하여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남련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인 고려련방공화국을 세우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국통일5개방침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계속 추구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정세를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를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온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 8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주체82(1993)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고 접촉과 래왕,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도 세우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에 여러가지 회담들이 진행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북남

합의서, 공동선언에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환경속에서 남조선인민들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의 《전대협》 대표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8(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전대협》 대표를 만나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구호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대에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세대가 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고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라는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도록아래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속에서도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조선인민들

속에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습니다.

제 3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

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주성을 지키는것을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도록가운데 구호를 가리키며)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체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전 쏘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시는 한편 사회주의나라 지도간부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시여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64(1975)년 12월에 발표하신 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로작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이 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 국제회의를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0(1981)년 8월 31일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협의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반제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국제회의들과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과를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재건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전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81(1992)년 4월에 여기에 있는 신문자료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계 수많은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 대표들은 평양에 모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평양선언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평양선언에 대하여 소개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지역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 도록에 있는 이 사진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사진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대회와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연구조직들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조직되고 연구토론회가 널리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출판물들이 세계적으로 수많이 발행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6(1987)년 4월 15일 우리나라를 찾아온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사회활동가들, 혁명가들과 학자들, 인사들이 대륙과 대양을 건너 우리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내놓으시고 세계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는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최대의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세계5대륙에서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이 진렬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입니다.

제 3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신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에 몸이 몹시 불편하시여 치료를 받으셔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쉬임없이 일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19일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몸소 온천군 금당협동농장과 평양시 대성구역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여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해 농사에서 풍작을 가져오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그해 4월 25일에는 어느 한 공군부대를 찾으시여 조선인민군창건 62돐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의 전투훈련모습도 보아주시였으며 군무생활형편에 대해서도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남기신 친필과 판문점에 세운 친필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비준해주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중대한 문건에 씌여진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친필은 대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남기신 친필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17일 전 미국대통령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미제는 1994년 6월 전 미국대통령을 우리 나라에 보내여 조미회담을 다시 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미회담이 우리 나라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 미국대통령을 만나주시였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미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생의 마지막시기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온 대표단을 만나시여 세계혁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회고록을 집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

필하신 회고록과 그 집필요강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7일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의 축하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축하문에서 우리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대회참가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5월 5일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에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자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여 **김정일**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라고 거듭 이르시였습니다.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받드는데서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아들딸, 손자, 손녀들도 잘 키워 장군님을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시였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대원수님의 간곡한 당부를 잊지 말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나어린 소년근위대가 되여야 합니다.

제 3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으나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이 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가장 큰 슬픔이였고 돌이킬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 급병으로 너무도 애석하게 돌아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돌아가시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은 온 나라는 울음바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할것없이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눈앞이 캄캄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 그리고 유치원어린이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부르며 목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사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잃은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대원수님의 령전과 동상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의 벗들입니다.

애도기간인 7월 8일부터 20일까지만도 연 2억 1천 2백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평양에서는 7월 19일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영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습니다.

온 수도시민들이 다 떨쳐나와 100여리연도에 늘어서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래워드리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열리고 온 나라 곳곳에서도 추도식이 엄숙히 진행되였습니다.

원쑤놈들이 욱실거리는 남조선에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는 모임이 곳곳에서 엄숙히 진행되였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우리 조선사람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는 행사들을 엄숙히 진행하였습니다.

온 세계 인민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것을 몹시 슬퍼하면서 화환도 보내오고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애도기간 세계 120여개 나라에서 7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특집을 발간하고 200여개의 통신, 방송이 연 2천 2백여회에 걸쳐 특별방송으로 대원수님의 업적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태양처럼 환히 밝혀주셨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언제나 우리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면서 아버지대원수님을 길이길이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정해주시고 주체년호도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신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결의모임을 가지는 소년단원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생전에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잘 꾸리고 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여주시였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이고 주체의 최고 성지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본받아 아버지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대원수님의 유훈을 어김없이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부를 잘하고 조직생활을 잘하면서 몸을 튼튼히 단련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실것을 맹세다지는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자!》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앞날의 혁명인재,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함으로써 세상에서 으뜸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욱 빛내이며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합니다.(도록중간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
도 록 해 설
(소학교 소년단원용)
(재 판)

편 집 송혜경 장 정 한명신
편 성 인태선 교 정 안명순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2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2월 15일

ㄱ－15484ㄴ 값 15원